‘善의 선순환’…북아현동의 ‘감동’

절망의 끝에서도 여전히 희망은 남아 있어

작은 불빛이 큰 횃불 돼 돌아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지난 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례간부회의 때 한 주민이 지난주 자신에게 보내온 손 편지 한 통을 소개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은 61세 남성 박모씨.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한 고시원에서 살다가 이달 초 의정부시로 이사하면서 문 구청장에게 편지를 남겼다.

박씨는 고시원 방 한구석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절망의 나날을 보내던 자신에게 북아현동주민센터 주민복지팀 직원들이 보여준 관심과 보살핌을 결코 잊을 수 없어 편지를 쓰게 됐다고 밝혔다.

사업 실패로 실의에 빠져 알코올 중독자가 된 후 가족과의 단절로 부랑 생활을 하던 박씨는 지난해 3월 북아현동 고시원에 자리를 잡았다.

생계유지를 위해 공공근로에 참여했지만 통풍이 악화돼 그마저 중단했다. 알코올 의존이 심화돼 3개월 동안 병동에 입원하기도 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박씨는 북아현동주민센터의 권유와 지역 복지자원 연계로 기초생활수급과 임대주택 신청을 하고 밑반찬과 목욕 쿠폰 지원, 임플란트 시술 등을 받을 수 있었다.

박 씨는 편지에서 “자존심 강한 저를 세심히 관찰하신 주민복지팀장님이 살다가 힘들 때는 도움 받는 게 순리고 그것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설득하실 때 순간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먹먹해졌다”고 말했다.

북아현동주민센터는 마음을 연 박 씨에게 어려운 이웃이 소외계층의 다른 이웃을 돕는 ‘밑반찬 봉사활동’을 권유했고 박 씨는 올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매월 2회 고시원에 거주하는 15명에게 밑반찬을 배달했다.

재활의 길을 걷게 된 박 씨는 지난달에 LH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돼 의정부 지역의 원룸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박 씨는 “불우한 처지에 놓인 주민을 대할 때 동주민센터 직원 분들이 보여 준 환한 미소, 배려가 깃든 말, 자존심을 세워 주는 세심함이 큰 위로가 됐다”라며 “따뜻함과 진정성으로 어려운 주민을 보듬어 안았던 그분들이야말로 이 시대를 밝히는 작은 영웅들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는 말로 편지를 맺었다.

문 구청장은 이달 정례간부회의 때 헌신적 활동을 펼친 북아현동주민센터 주민복지팀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씨로부터 받은 편지를 직접 읽은 문 구청장은 “진심은 통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 사연”이라며 “새해에도 이같은 미담이 서대문구의 최일선 행정 현장 곳곳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젠 시니어를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다

경북 봉화 분천

오로지 중년만을 위한 크리스마스파티가 경북 봉화에서 열린다.

힐링 문화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진행하는 워크앤런이 오는 24일 오후 7시에 분천 산타마을에서 ‘시니어를 위한 추억의 메리 크리스마스 파티’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중년의 참가자들이 1박 2일간 산타 복장을 하고 바비큐 파티도 즐기고 걷기 대회에 참가하며, 유대 관계를 갖게 된다.

첫째날 참가자들은 참숯 통돼지 ‘바비큐 디너 ‘와 경매, 선물 교환 시간을 가지며 즐거운 한 때를 보낸다. 모닥불 앞에서 즐기는 ‘싱얼롱 타임’에는 신나는 캐럴 및 7080 시절의 노래를 부르며 영원히 잊지 못할 새로운 추억을 쌓는다.

둘째날엔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산타 워크앤런’에 참가한다. 오전 11시에 분천역 광장에서 열리는 걷기 및 달리기 행사로 참가자들은 산타 모자를 쓰고 2km, 5km, 10km 코스에 참여할 수 있다.앞서, 이날 아침 식사로는 떡국을 제공한다.

이번 크리스마스 파티는 50대 중반 이후 중년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친구 혹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참가해도 무방하다. 가격은 성인, 소아 불문하고 1인당 7만원이다.

참가 제한 인원은 40명이다. 참가 신청은 워크앤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김홍덕 워크앤런 대표는 “크리스마스는 시니어들에게도 영원한 로망이다”라며 “백세 시대의 시니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친구, 가족 등 지인들과 함께 모여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즐길 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최동현 군산대 교수, 목정문화상 수상

최동현 군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10일 제27회 목정문화상 문학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목정문화상은 고 목정(牧汀) 김광수 선생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재)목정문화재단에서 전북지역의 향토문화 진흥을 위해 공헌한 문화예술인 또는 단체를 찾아 시상하는 상이다.

1993년부터 매년 문학·미술·음악 3개 부문에 걸쳐 현재까지 78명(단체 포함)에게 시상했다.

그는 1985년 남민시 동인지 ‘들 건너 사람들’에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이후 판소리 연구에 전념해 ‘판소리란 무엇인가’ 등 60여 권의 저서를 펴냈다. 지난해에는 시집 ‘바람만 스쳐도 아픈 그대여’와 ‘최동현 문선’을 출간하는 등 창작·연구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특히, 전북작가회의 회장과 전북민예총 초대회장을 맡아 전북 문화계의 발전에 이바지했으며, 판소리학회 회장과 전라북도문화재위원회 위원,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에 공헌하기도 했다.

군산대의 인문대학장과 대학원장을 맡아 후학 양성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 교수는 군산대에서 1992년부터 27년간 재직하고 있으며, 2020년 2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안 내

“생활소식을 실어드립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전남상담소 (061)792-0362 한국노총 순천노동상담소 (061-721-7363)한국노총 여수상담소(062-685-5293)

▲호남해바라기아동센터 시스템 무상제공= 13세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 대상 긴급구조, 상담, 의료, 심리치료(0062-232-1375)

▲생활상담 연구원 무료 방문, 전화, 온라인 상담=개인, 주부, 가족폭력, 성, 청소년 고민 등(062-363-5599)

▲알코올상담 서비스 실시=인광알코올삼담센터 무료 알코올상담=술로인해 고통받는 사람 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222-5666)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인권상담=월~금요일 오전9시~오후 5시 (일반전화 국번없이 1331 ,전화 062-1331)

▲월 연탄 100장 기증 회원·연탄배달 회원(연10회)=1년 내내 자동이체 후원자·전남 거주자, 광주장애인사랑봉사회 연탄 100장으로 봉사 ‘광주본부 (522-8909)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 장애인 체육 동회인 및 선수를 를 모집 광주광역시장애인 체육회 상담전화(1577-7976)

▲빛고을 한사랑 회원모집=영아원 및 지체장시설 봉사에 뜻이 있는 20세 이상 남녀 (010-9974-9390, 문자환영)

▲제주 특별자치도민회원 모집=광주전남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제주출신 환영합니다. 문의(062-374-5885,010-2444-4500

▲남녀 배구회원 수시모집=수시(매주 월, 수, 금, 토요일) 광주 북구 일곡동 일동중 학교 문의(011-612-2112)

▲영상과 브레인 회원 모집=시나리오(8㎜) 스터티그룹, 옵저버, 드라마(구성작가) 등 공동창작활동 관심있는 사람. 20~30대 응모가능, 40대는 경력자

▲빛고을 한사랑 회원모집=영아원 및 지체장애시설 봉사에 뜻이 있는 20세이상 남녀 (010-9974-9390, 문자환영)

▲평동지역아동센터(공부방) 직원·자원봉사자 모집=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미술·만들기 등 예능에 소질이 있는 분, 문의 062-363-5599

▲푸른복지문화센터회원=댄스스포츠,퀼트,팝 062-531-1769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소송 분쟁시 비용 지원(132, 1577-8339)

▲광주·전남 MC품바 회원 모집=품바 배우실 분(010-4624-8787)

▲신용사회만들기 시민연합 무료 채무상담=많은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종합민요사랑모임 회원=민요를 사랑하며 사회봉사에 뜻이 잇는 45세 이상 남녀(019-601-6989) ▲신용사회만들기 무료 채무상담=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인권상담(일반전화 국번 없이 1331)

▲제주 특별자치도민회원 모집=광주전남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출신 환영합니다 문의(062-374-5885, 010-2444-45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인권상담(일반전화 국번 없이 1331)

▲ 오치종합사회복지관 결혼이주여성 한글교실 회원모집=초급밥 : 화·수요일, 중급반: 월·수·금요일, 수강료 무료 문의(062-267-3700)

▲푸른복지문화센터회원=댄스스포츠,퀼트,팝 062-531-1769

▲광주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소송 분쟁시 비용 지원(132, 1577-8339)

▲광주·전남MC품바 회원 모집=품바배우실 분(010-4624-8787)

▲신용사회만들기 시민연합 무료 채무상담=많은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신용불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채무상담 매주 월~금 오후 5시. (062-226-9001~2)

▲제주 특별자치도민회원 모집=광주전남 전북 지역에 거주하는 제주출신 환영합니다 문의(062-374-5885, 010-2444-4500)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지역 사무소 인권상담(일반전화 국번 없이 1331)